

# 방조제 착공 30년 새만금, 그린뉴딜·신산업중심지로 성장 중

## 공공주도 매립·연간 1조원대 예산 투입 문 정부·송하진 도정 의기 투합 내부개발 가속

방조제가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을 맞은 새만금이 이제는 기반시설 등 내부 개발에 대한 실행계획이 속속 추진되면서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서 거듭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방조제 완공에만 19년이 걸리고 실질적인 내부개발과 지부진하던 사업추진이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한 이래 새만금 기본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았다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뿐 아니라 연간 사업예산이 1조원대로 넘어서는 등 새만금 개발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이 빨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2018년에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 공사 설립은 송하진 지사가 여야 3당 대표를 직접 만나 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전 북 현안을 건의하는 등 혼신을 다 해 설득하고 도내 정치권과 공조하여 총력 전을 펼쳤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경우 '20년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올해 2월 새만금위원회(최종 의결기구)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변경됐다.

새만금의 미래상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등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전략과 비전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의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2050년까지 사업 완료

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단계별 로드맵과 사업모델을 제시하였고,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해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일·삶·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지역간 연결도로(1=20.7km, 9191억원)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진흥지구, 국가시범사업 추진(인프라 지원) 등 사업지구별 전략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만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교통 등 SOC분야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전북권 신공항 건설을 도정 핵심과제로 본격화됐다.

도는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등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논리를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당위성 논리를 앞세워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포함됐고, 드디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건립이 확정됐다.

지난 9월에는 '적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2022년 최종 정부예산안에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증액된 200억원이 반영된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새만금방조제 전경

(사진=전북도청 제공)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개항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 방안이 적용되도록 꾸준히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신항만은 민자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규모도 2만톤으로 확대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으로 공한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이 이뤄지게 됐다.

또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23년 완공될 남북도로, 그리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트라이포트인 공한 철도 항만이 완공되면 모든 길이 새만금으로 통하게 된다.

이로써 새만금은 하늘길(공항), 바다길(항만), 땅길(철도 및 도로)로 연결되어 글로벌 생태문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동시에 전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중심지로 산업 분야와 투자유치분야에서도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핵심 선도시역으로 부각되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지원을 약속해 세계적 화두인 탄소중립 실현에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ESG경영을 선포한 SK그룹은 작년 말 2조 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올해 7월에는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전해질 소재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전보에스가 이전지전 전해질 제조 공장 건립을 위해 5천여 원대 투자를 결정해 새만금이 신산업 중심의 투자이자 대기업 및 대규모 투자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철도 등 구축이 가시화되고 수변도시 개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 투자 여건이 마련되면서 새만금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활발하다.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시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1조 3천 5백여원을 투입해 인구 2만 5천명이 거주 가능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24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스마트기술 기반의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명품 수변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시·야미 관광테마지구 약 1.9km에 총사업비 8,768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 및 상부 건축물을 조성추진 중이며 선도시역인 신시도호(200실)에 오는 '23년 6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새만금 1호방조제 시작점에 사업비 2,548억원 개발면적 1.1km 규모의 초유지 개발사업이 추진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 21년 7월에 매립공사를 완료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새만금 내 민간투자 관광사업으로는 새만금(레미파크 & 리조트) 개발사업(통합개발계획 수립중), 웰링지 테마파크 개발사업(통합개발계획 수립중),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우선협상자와 협상 중) 해양테마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우선협상자 선정 중)등을 추진 중에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매립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만금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구적 거주공간인 수변도시 조성도 시작돼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새만금은 지금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속도감 있는 개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갈 메가 프로젝트 사업들을 열매내기 시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다"며 "이처럼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꾼 전무후무한 대규모 프로젝트이자 단순히 전북이라는 지역 차원의 성취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대도약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정부와 함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유호상 기자

## 국가예산 확보 '촘촘하고 정밀하게'

### 조보업 행정부지사, 국회 찾아 기재부 예산 핵심라인 집중 공략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전북도 지휘부가 총출동해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기재부 핵심인사 막판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말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이번 주 마지막 예결소위의 증액심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마지막 남은 한주간의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연일 지휘부의 예산확보 활동은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조보업 행정부지사가 막판 예산심사가 한창인 국회를 전격 방문해 기재부 경제예산 라인을 만나 전북도 핵심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피력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임기근 경제예산심 의관에게는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산업지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예산분야 핵심사업 10여건을 추려, 증액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 사업은 전북도가 정부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

해온 사업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전북도의 추진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 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탄소 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허승철 국토교통예산과장에게는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을 위한 영커

기능을 담당할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반영과 지난 6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공모 선정된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 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탄소 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정보통신예산과 장에게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신 시장 창출을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음주운전 '꼼작마'

### 전북도,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 위해 근절대책 수립 사전 예방활동·사후 제재강화·무관용 원칙 처벌

전북도가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예방활동 및 사후 제재 강화를 골자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자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했다.

또, 2019년 6월 25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부적으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19년 8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에, 지난 2016년 11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비위가 2020년도에는 2건까지 줄어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공직자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전북도는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판단, 근절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음주운전이 관대한 음주문

화와 그릇된 윤리의식 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예방 안내문 게시, 각종 회의 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휴가철·연말 연시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안내 방송과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예방활동 통해 공직자의 인식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실시, 상과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배정,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배제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사후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기초지자체도 자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토록 권유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노후 육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전북도는 노후주택의 녹슨 육내급수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노후 육내 급수관 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육내 급수관'이란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에서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으로 급수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그간 육내 급수관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했지만 관리 소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로 인해 녹물 발생 등 수질저하의 원인이 됐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노후 육내 급수관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4개 시·군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418세대의 노후관 개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이연도강관 재질' 육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 및 지난 2009년 이전 준공 주택 등이다.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95%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스포츠-관광 융합' 2023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 다짐

### 도·시군 문화관광부서장·도내 유관기관 간담회...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북도 및 14개 시군 문화관광부서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회기간동안 해외 참가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여행·숙박·?운송업 등 관광 관련업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14개 시군으로 분산 개최되는 대회의 특수성으로 관광프로그램 운영시 예상되는 혼란,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도 공유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북을 방문하는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전북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리고, 스포츠 관광산업의 메카로서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강오 조직위 사무총장은 "스포츠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북도 및 14개 시군 문화관광부서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와 관광이 결합된 이 대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전 국가적인 환경 변화로 침체된 도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좋은 기회다"라고 했다.

또한 "도내 관광 유관기관 및 도와 시군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대회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북의 숨겨진 관광자원이 더욱 빛

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23년 5월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초의 생활체육 국제스포츠 이벤트로서, 전 세계 국가에서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영상 공유 공모전 심사 진행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에서 보고 경험한 영상을 공유하는 '새만금의 지금' 공모전에 대한 국민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8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접수된 응모작은 총 59점으로,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4개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후보작에 대한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온라인

심사를 실시한다.

후보작은 ▲새만금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태권무를 선보이는 '새만금을 두드리다', ▲스카우트 복장으로 새만금 곳곳을 소개해주는 '군산 탐험치기 여행코스 best 4', ▲흔차 떠나는 여행의 일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만금', ▲화려한 랩을 자랑하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새만금을 따라가' 등이다.

/유호상 기자